YEZAC(예작) 버킷 세트 II 출시

취향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선택 가능한 버킷 패키지!

SPECIAL PRICE ₩65,000 (웜비즈셔츠+양말 3족)

장미인애 이젠 짝사랑 모드

metro 메트로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최형우 만루포 삼성 2연승

강남역 되살린 '폼터디족 파워'

대학생 김글린(22·왼쪽)·김설(25)씨가 24일 서울 강남역 인근 드러그스토어 디셈버투애니포에서 화장품을 써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래는 스터디카페 'CNN 카페' 강남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손진영기자 son@

쇼핑하고 놀며 폼나게 공부하는 대학생들 북적…스터디카페·드러그스토어 등도 몰려와 '윈윈 효과'

요즘 대학생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쇼핑하고, 먹고, 논다. 혼자서도 놀고 여럿이 같이 놀기도 한다. 월요일에도 가득 차 있는 젊은 활기로 꽉 찬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다. 서울 명동과 홍대 앞, 신사동 가로수길에 내줬던 젊음의 놀이터가 다시 강남으로 복귀하고 있다.

24일 찾은 CNN 카페 강남점 200여 석의 자리는 책이나 넷북을 들여다보며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대형 어학원과 취업학원이 밀집한 강남역 일대의 명물로 떠오른 '폼터디(폼나게 스터디하는 학생)'족들의 아지트, 스터디 카페다.

스터디 카페는 커피전문점과 도서관의 장점을 합친 곳으로 강남역 일대에 2~3년 전부터 생겨나 성업 중이다. 어학원들이 직접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기도 해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카페로 몰려가는 풍경이 연출된다. YBM어학원 강남센터는 CNN 뉴스가 흘러나오는 CNN카페를, 파고다어학원은 영어카페 '허', 정철어학원 강남캠퍼스는 '에세스 푸드 플' 운영 중이다.

대학생들이 서울 신촌이나 홍대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리는 이유는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재미있는 놀거리가 한 데 몰려 있어서다.

◆ 신촌·홍대서 2호선 타고 원정

강남역 10번 출구를 따라 나오면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매장이 눈에 띈다. 8월에 문 연 드러그스토어 디셈버투애니포는 화장품과 건강용품, 편사용품, 음료 등 여자들이 바르고 써보고 먹을 수 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다. 종류만 5000여 가지에 달한다.

이곳에서 만난 김설(24)씨는 "신기한 제품이 많아 친구들과 이것저것 써보다 보면 2시간은 훌쩍 지난다"며 "눈치 볼 필요 없는 부담 없는 공간이라 약속 장소로 통한다"고 말했다.

여자들의 편의점이라 할 드러그스토어를 두고 대기업들이 총성 없는 '강남대전'을 벌이고 있다. 카페베네가 운영하는 디셈버투애니포 뒤편으로는 'CJ올리브영'이, 큰 길 맞은편에는 미용실과 약국까지 갖춘 신세계 '분스'가 영업 중이다. 12번 출구 뒤에는 GS리테일의 '왓슨스'까지 포진해있다.

카페베네의 홍주혜 과장은 "명동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홍대와 가로수길은 강남역보다 신세대들의 유동인구가 적어 기업들이 홍보효과가 큰 강남역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남역을 통과하는 10차선 강남대로변은 패션·뷰티 브랜드의 각축장이 됐다. 30년 넘게 강남역의 랜드마크로 통했던 뉴욕제과는 지난달 제일모직의 SPA브랜드 에잇세컨즈에 자리를 내준 상태다.

해외외식브랜드에선 한국 1호점 매장으로 강남을 선호한다. 워낙 트렌디한 곳이다 보니 테스트 매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아서다. 일본 최대 규모의 패스트푸드 브랜드 모스버거와 파스타 브랜드 고에몬은 지난 4월과 이달 중순 각각 강남역 인근에 둥지를 틀었다.

◆ 대기업들 잇따라 매장 오픈

전통적인 트렌드 명소였던 강남역 일대가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은 유동인구와 관련이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가 지난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역의 하루 유동인구는 100만 명을 육박한다. 옛 뉴욕제과 앞에만 하루 20만 명이 오가고 패션거리인 10·11번 출구 앞은 20대 비율이 32.8%로 매우 높다.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연구원은 "삼성타운이 생기고 신분당선이 연결되면서 남쪽으로 상권이 확장돼 임대료 수준도 명동의 80% 수준으로 바싹 따라잡고 있다"며 "그동안 강남역이 먹는 상권이었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쇼핑 상권이 더해져 소비가 활발한 20대를 중심으로 '강남 불패' 신화를 지켜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투덜이 과장님 몸 사리세요"…기업 80% 살생부 명단 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블랙리스트 1순위는 매사에 불평거리는 투덜이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1159명에게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의 블랙리스트가 있느냐고 물어본 결과 83%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유형 1위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53.7%·복수응답 허용)이 꼽혔다. 이어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53.1%), '업무 능력 및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45.9%), '시키는 일만 하는 소극적인 직원'(41.3%), '열심히 없는 이기적인 직원'(41.2%),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직원'(36.3%) 등이 거론됐다.

응답 기업 중 67.3%는 블랙리스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이익으로는 '평가 시 낮은 점수'(42.2%), '승진 대상에서 누락'(39.9%), '연봉 및 인센티브 삭감'(35.2%), '업무 박탈 또는 정지'(14.7%) 등이 있었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직원이 예뻐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반대로 회사 방침에 사사건건 불만을 내비치는 직원이 가장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삼겹살값 '10원 전쟁'

대형마트들 '850원→840원→830원' 하루새 엎치락뒤치락 가격내리기

대형마트들이 삼겹살 10원 할인 전쟁에 돌입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란히 창립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삼겹살 값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기 위해 당초 발표가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이 틈에서 홈플러스 역시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리게 됐다.

할인 경쟁의 불씨는 롯데마트가 붙였다. 롯데마트는 전날 25일부터 일주일간 삼겹살을 100g당 980원에 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마트가 100g당 85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 전단을 배포하자, 롯데마트는 하루 만에 840원으로 내렸다. 롯데마트가 값을 낮췄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마트는 재빨리 830원으로 조정, 다시 경쟁사보다 10원 낮은 수준으로 깎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홈플러스도 가격 조정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전단지에 삼겹살을 100g당 990원에 판다고 인쇄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850원에 판매 중이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상대 기업을 깎아내리는 비방전도 펼치고 있다. 이마트는 "애초에 100g당 850원이라는 파격가를 게시한 것은 우리인데 해도 너무하다"며 "우리는 준비한 물량이 일주일간 410t에 달해 넉넉하지만 롯데마트는 비교적 조기 품절 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삼겹살이 가격 민감 상품이다 보니 경쟁사 가격을 고려해 조정하게 됐다"며 "준비한 물량은 모두 180t으로 1인당 2kg으로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건보료 1.6%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8%에서 5.89%로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455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1250원 늘어난다.

/배동호기자 eloyo@

온라인 고스톱 10만원 잃으면 48시간 아웃

매달 쓸 수 있는 온라인 게임머니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1회 최대 베팅은 1만원, 하루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다. 성인이 주로 하는 고스톱, 포커류가 주요 타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온라인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게 게임을 제공하면 문화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된다.

/박성훈기자 zen@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靑경호 받으며 특검 출두

피의자 신분 이시형씨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25일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사상 처음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인 만큼 시형씨는 물샐 틈 없는 철벽 경호 속에서 특검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회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쓴 채 등장한 이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왜 명의를 빌려줬느냐', '6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안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고 반복해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사무실 주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일반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으며 경찰버스 6대와 경찰 100여 명이 배치돼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사저 부지 매매 과정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자금 출처 등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석기자 gusss10@

'너구리' 벌써 다 팔렸는데…

식약청 '발암물질 논란 라면' 뒷북 회수조치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의 라면 제품이 결국 회수된다. 앞서 식약청은 해당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미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다 돌연 입장을 바꿔 파장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을 포함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다른 업체 제품도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회수 대상은 농심 '얼큰한너구리', '순한너구리', '새우탕큰사발면', '생생우동',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컵' 등 6개 종목과 동원F&B '동원생태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오락가락하는 식약청 탓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원 김진아(28)씨는 "평생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회수한다고 하니 집에 있는 라면을 먹어도 될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전달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환불 조치 등 아직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효순기자 hsjeon@

800m 무지개 가래떡 25일 경기 이천 설봉공원에서 열린 이천쌀문화축제에서 800m에 달하는 2000인분 무지개 가래떡을 관광객들이 들여보이고 있다. /뉴시스

가산금리 비교한후 싼곳서 대출받는다

승진·소득증가 등 신용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도 가능

은행들이 산출근거도 없이 이자를 더 받는 장치라고 지적받았던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가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영업점 평가규정에 있던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제외토록 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은행 영업점 평가에서 가산금리 항목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점장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철진 선임조사역은 "11월부터 내규에 적용된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8월에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가 폐지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기회에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계·기업대출의 대출금리 운용체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또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비교공시하도록 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불필요한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핵잠수함 주조정실 공개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함(SSGN-726) 내부가 공개된 가운데 주조정실(조타실)에서 승조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뉴시스

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 추진

성인 성범죄 양형 대폭강화

성인 대상 성범죄 형량도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6월~2년, 친족 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은 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은 6~9년, 일반강간 2년6월~5년, 친족 주거침입·특수강간은 5~8년, 강도강간은 7~10년 등의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죄질이 나쁜 경우 최소 1~3년에서 3~4년 가량 형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도강간의 경우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895>

글·그림 박상철

그리스 작가 카잔차키스 사망

1957년 10월 26일 그리스의 시인이자 소설가, 극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사망했다. 그가 생전에 미리 써놓은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

니체와 베르그송의 철학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와 불교, 기독교 등 이질적 세계관들의 통합을 시도했던 카잔차키스는 55세에 발표한 서사시 '오디세이아'와 63세에 발표한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로 뒤늦게 그리스의 대표작가가 되었다.

세터민 어린이 생애 첫 핼러윈 파티 서울 구로구 소재 새터민 대안학교 삼흥학교 어린이들이 2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열린 '생애 첫 핼러윈 파티' 행사에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월드와 사회복지 NGO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 기획한 이 행사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새터민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월드 제공

이인제 "朴 당선시킬 것"

새누리-선진 합당 공식선언… 이, 13번째 당적 변경 기록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인제 선진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당이 하나가 돼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어 이번 대선에서 안정과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황께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통합으로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대중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어떤 차별이나 특혜도 배격하겠다"고 거들었다.

149석의 새누리당은 선진당 4석을 추가해 153석으로 단독 과반을 넘게 돼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는 한편 대전·충청권에서의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합당의 결합이 오히려 국민정서에 부정적일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합당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대 협력할 수 있다"면서 "적어도 한 정당이 창당되고 존재한다면 그만한 이유와 정체성, 이념, 노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 영향력에 대해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인제 대표의 당적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철새도래지의 완결판"이라며 "국민대통합이겠다더니 보수대통합하고 있다. 이 대표는 13번에 걸쳐 당적을 변경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고 비꼬았다.

선진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류근찬 전 의원은 "신뢰정수도 추진 무력화로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비수를 꽂은 세력, 당내 인사를 빼내가 선진당을 붕괴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자행한 새누리당과 합친다는 것은 충청의 비재만 자존심까지 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선진당 정상화를 위한 당원협의회는 서울 남부지법에 합당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채동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인제(왼쪽) 선진통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국회 [illegible]에서 합당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활짝 웃고 있다. /뉴시스

"단일화 한달내 끝내라"

재야원로, 文·安 측에 "공식선거운동 전 하나 돼야"

야권 성향의 원로 모임인 희망2013 승리2012원탁회의가 기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원탁회의는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양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설렘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 후보 측에는 "정당 정치의 헌법적 의미와 현실적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에는 "현재의 정당 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할 새로운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고 인적 쇄신에도 국민 눈높이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고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illegible]

아시아 10개국, 한국 산재보험 '열공'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배우려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산재보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근로복지공단은 25~26일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아시아산재보험포럼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개도국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한다.

공단은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사회보장부문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를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 여러 국가에 수출해 왔다.

아시아산재보험포럼은 아시아 10개국의 주요 사회보장기관 12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26일에는 회원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선언문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럽 아태지역 산재보험의 주요 이슈와 전망, 국제세미나를 통해 회원기관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동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illegible]구 [illegible]로 2가 1-[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2-1561

발행인·회장	[illegible]
사장·편집인	[illegible]
편집국장	[illegible]
광고국장·이사	[illegible]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9-2100
독자센터	(02)721-9882

[illegible]

OK CASHBAG

Pororo PARK

OK CASHBAG

1000포인트 페스티벌

뽀로로파크(키즈카페) 부모입장권 6,000원 (잠실점 1만원) ➡ 1000포인트

나머진 OK캐쉬백이 쏜다!

스페인 백수 청년도 中 반체제 예술가도 '강남스타일' 시위

싸이 덕에 웃는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스페인 청년과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가 '강남스타일' 시위를 벌였다. 두 사람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동영상을 통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흥겹게 표출했다.

24일(현지시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나는 실업상태'라는 제목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공사장 인부 차림으로 등장한 청년은 원곡의 '나는 강남스타일'이라는 가사 대신 '나는 실업상태'라고 외치면서 흥겨운 말춤을 추고 있다. 그는 또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외치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영상 후반부에는 시민들이 청년을 따라 길거리와 음식점에서 함께 말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장면도 나온다.

이날 오후 이 영상의 조회수는 38만 3000여 건, 추천 건수는 5000건을 넘었다.

중국의 설치예술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도 '강남스타일'을 이용한 패러디 동영상을 올렸다.

아이웨이웨이는 베이징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서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거 패로 우스꽝스럽게 말춤을 춘다. 아이웨이웨이는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흔들기도 한다. 반체제인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미기자 sosorry@metroseoul.co.kr

이시하라 "극우신당 만들겠다"

도쿄지사 전격 사임 선언 일본 정치권 우경화 가속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지사직을 사임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하라 지사(80)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복귀하려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차기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에 의욕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4월 도쿄도 지사 4선에 성공해 4년 임기를 1년6개월 정도 재임했지만 이번에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시하라는 "지사직 사퇴 후 신당을 창당해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시하라 신당에는 히라누마 다케오 대표가 이끄는 우익 정당 '일어나라 일본'이 해산 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 유신회와도 공조할 방침을 세운 이시하라 신당은 차기 총선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해 정계 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 등 영토 문제에 강경한 이시하라는 핵무장 등을 외치며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던 극우 정치인이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도쿄도가 매입하겠다고 밝혀 일본 정부의 국유화 조치를 촉발했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문희기자 unique@

"나의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의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24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참여 열창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페리는 최근 오바마의 얼굴이 새겨진 네일아트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AP 뉴시스

미군 "레이저 무기 곧 실전에"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레이저 무기가 조만간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미 해군 무기연구소(ONR) 소장인 매튜 클린더 제독은 24일(현지시각) 과학전문 매체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레이저 무기가 최근 무인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등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며 "당초 레이저 무기 탑재를 4년 후로 잡았으나 이를 앞당겨 2014년에는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20년의 시간과 수억 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레이저 함포가 실전 배치되면 개발비의 몇 배를 뽑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국룡기자 kimkoo@

metroglobal

metro France

/les livres ne sont pas po

metro Russia

'ере обиделись
вые мигранты

"이민자가 청소도구?" 책자 논란

최근 러시아 체테르부르크에서 이민노동자를 위한 안내책자 가 이민자들의 시위를 불러왔으켰다. 커튼통삭으로 만들어진 이 책자가 이민노동자들을 먼지털이, 롤러 등 청소도구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이민자 협회 이리진 하이다로프 회장은 "책자를 보고 몹시 분노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페테르부르크 시 당국은 해당 책자에 대한 내용을 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metro Chile

ovocó juez que
idelidad de alcotest

혈중 알코올 농도 0.5% 얼마 돼?

최근 칠레 축구스타 이누를 너이라기 음주운전으로 회부된 재판에서 법원이 휴대용 음주 측정기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논란이다. 네이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 재판에서 히트리시오 소루사 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5%는 알코올 중독자에게서나 나타나는 수치"라며 측정기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성인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5%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도수 40%의 위스키나 보드카 19잔을 마셔야 한다.

metro Mexico

소리로 뇌파 조절 사이버 마약 확산

멕시코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 마약'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 마약은 소리로 뇌파를 조절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음주, 마약 복용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보통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된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한 채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한 20대 여성은 "남편과 함께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멈췄을 때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신분석학회 회원인 마릴레 마룩 박사는 "사이버 마약은 양쪽 귀에 다른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입체 음향을 처리하는 뇌의 부위를 자극한다"며 "소리에 따라 다른 종류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아이도저(I-doser)' 혹은 e-마약(e-drug)이라고 알려진 사이버 마약은 5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마약 판매 사이트에서는 수면제, 환각제 등의 효과가 있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이버 마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연령은 13~24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심리학과의 베로니카 이슬라스 교수는 "상당수 멕시코 젊은이들이 파티에서 사이버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자주 들으면 중독되거나 감정 기복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르난다 마실레 기자
/정리=조선미 기자

"남편과 야릇한 실험도…"

프랑스 출간 '그레이의…' 작가 인터뷰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든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프랑스에 상륙했다. '그레이-'는 젊고 잘생긴 억만장자와 대학 졸업반 여대생의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성인용 로맨스 소설이다. '엄마들의 포르노'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4000만 부가 팔렸고 프랑스에서도 출간 이틀 만에 1만5000부가 판매됐다. 화제의 작가 E. L. 제임스(49)를 18일(현지시간) 메트로 파리가 만났다.

▶ 처녀작이 대박을 터뜨렸다. 책의 성공에 대한 소감은.

▶▶ 아직 쇼크 상태다. 항상 작가가 되기를 꿈꿔왔지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 성공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여성들이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에 열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사도마조히즘(가학·피학적 고통을 통한 성적 쾌감) 판타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에 더 가깝지 않나.

▶▶ 글래시한 사랑 이야기에 성적 판타지가 조금 가미됐을 뿐이다. 사실 조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웃음) 이 책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내 책은 포르노가 아니다. 에로틱할 것이다.

▶ 사도마조히즘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 굉장히 흥미롭고 뇌쇄적인 세계라고 느꼈다. 극단적이고 독특한 취향을 가진 남자의 사랑에 빠지는 느낌은 어떨지 궁금했다. 여주인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썼다.

▶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나. 직접 시도해본 적도 있나.

▶▶ 사도마조히즘을 다룬 책을 많이 읽었고 인터넷도 활용했다. 다더지는 내 상상력의 산물이다. 내가 책에 쓴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남편과 실험을 해보긴 했다. 웃은 업은 저로.(웃음)

◆ E. L. 제임스는

방송국 PD이자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던 저자는 소설 '트와일라잇'에 매료돼 블로그에 팬픽션(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작품을 팬이 자신의 뜻대로 재창작한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네티즌들은 에로틱한 그의 소설에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온라인 소설은 이후 '그레이'로 출간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많은 여성 독자들이 당신의 책을 통해 성적 욕망이 살아났다고 말한다. 자부심을 느끼나.

▶▶ 의도했던 일은 아니지만 엄청난 일이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실감도 잘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카나다 코빌레 기자
/정리=조선미 기자

today metro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중국 고속도로 '귀신 광고판' 논란
- 선생님 보고 "선생님" 하면 안돼요
- 진공청소기로 쓰레기 수거 한방에

Kospi	10/19	10/22	10/23	10/24	10/25
	1943.84	1941.59	1926.81	1913.96	1924.50 (+10.54)

Kosdaq	10/19	10/22	10/23	10/24	10/25
	515.81	523.00	524.15	524.35	518.55 (-6.11)

Nikkei (일본)	9055.20 (+100.90)
Hang Seng (홍콩)	21810.23 (+46.45)
Shanghai (중국)	2101.58 (-14.41)
Dow Jones (미국)	13077.34 (-25.19)

EXCHANGE RATE	
달러	1095.00
엔(100)	1365.66
유로	1424.70
위안	175.41

삼성 '갤럭시 형제' 운명 백악관 새주인이 좌우?

美 ITC 예비판정 '애플 승'
내년 2월 최종결과 동일땐
대통령 재가로 '판금' 효력

애플이 연방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ITC 최종 판정에서도 삼성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갤럭시 시리즈의 미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5일(한국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과 관련한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침해 판정을 받은 특허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이다. 다만 토마스 펜더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외관 디자인 등 2건은 비침해, 1건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 자국 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번 판정은 예비 판정인 만큼 당장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내년 2월 20일 ITC 위원 6명의 최종 판정 후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나타난다.

/박상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 삼성·애플 주요 소송 일지

날짜	내용	결과
8월24일	한국 법원 "삼성, 애플 특허 1건 침해, 애플 '삼성 특허 2건 침해'"	삼성 승
25일	미국 배심원 "삼성, 애플 특허 6건 침해, 1조2800억원 손해배상해야"	애플 승
31일	일본 법원 "삼성, 애플 특허 [illegible]"	삼성 승
9월14일	미국 ITC "애플, 삼성 특허 침해 안해"	애플 승
10월18일	영국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해, 애플은 사과 광고 게재해야"	삼성 승
20일	일본 법원 "삼성, 애플 [illegible] 모두 기각"	애플 승
24일	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안해"	삼성 승
25일	미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애플 승

'애물단지' 키운 생보사

높은 공시이율 미끼로
저축성보험 비중 높인
일부업체 '저금리 앓이'

저축성보험이 생명보험사들의 골칫덩어리로 부상했다. 저축성보험을 팔아 몸이 덩치를 키웠던 생보사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돈을 굴릴 데가 없어져 수지타산을 걱정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HSBC생명, 흥국생명 등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에 힘을 쏟던 생보사들은 2012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적자를 기록하거나 겨우 적자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의 판매비율이 85.4%에 달하는 하나HSBC생명은 이 기간 614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고도 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수입보험료가 보험사의 매출액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9.6%로 본전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흥국생명(77.5%)도 1조478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61억원으로 순이익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27인치 스마트TV 첫선 LG전자가 27인치 '시네마 3D 스마트TV'를 국내 출시하며 소형 스마트TV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 제품에는 한류 콘텐츠 서비스 'K-POP 존', 3D 전용 콘텐츠 서비스 '3D 월드' 등 시네마 3D 스마트TV의 콘텐츠 기능을 포함했다. IPS 패널을 채용해 상하좌우 178도의 광시야각으로 어느 각도에서나 선명한 영상을 보여준다. 가격은 72만9000원. /김기성기자, LG전자 제공

또 미래에셋(74.7%) 알리안츠(76.8%) 등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생보사들은 대부분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 보험사들에 높은 공시이율을 미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해 외형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한 경영을 해왔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보장상품 취급이라는 생보사 본업과는 달리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내놓은 저축성보험 판매로 손쉽게 몸집을 키워왔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두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별걸 다하는 무인정보기 9호선 배치

국내 IT업체가 개발한 다기능 무인종합정보서비스기 이달 중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주)포인트닉스 측은 "쌍방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멀티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서울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 무인종합정보기 150대가 설치된다.

이 기기는 백화점상품권 교환 및 T-머니 충전, 인터넷전화 등 기능을 갖췄다. /정치섭기자

기업 대출서류 대표이사 자필서명 의무화

앞으로 보험사 등은 기업에 대출을 줄 때 돈을 빌리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필서명이 의무화된다. 법인 인감만으로 거래한 경우 여신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사례 발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사에 기업여신 취급 시 대표이사의 자필 서명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여신 취급 시 은행·상호저축은행은 약정서에 법인 인감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보험사, 상호금융, 여전사는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 인감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의 진정성 확보, 대표이사 대리인 간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금융사들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중소 가전 '모뉴엘' 日 진출

국내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모뉴엘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로봇청소기 2종과 소나무PC, 태블릿PC 2종을 11월부터 일본시장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최근 국내 출시된 로봇청소기 '클링클링'과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핸들리모콘 로봇청소기다. 또 윈도8과 인텔 코어 i7을 탑재한 태블릿PC 2종(11.6인치, 21.5인치),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알려진 '소나무PC' 등이다. /박상훈기자

woongjin
사람을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웅진플레이도시
할로윈 C PARTY!
실내, 야외워터파크는 물론 스노우도시까지!
동시에 펼쳐지는 세상 가장 신나는 할로윈 파티!
할로윈 이벤트(10/27)
국내최초 워터파크에서 열리는
"웅플 할로윈 코스프레 파티"
할로윈을 주제로 한 코스튬플레이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특별공연까지~
일시 : 10/27(토) 오후 2시 ~ 4시
축하 이벤트(10/27~11/4)
7 삼산체육관역
7호선 삼산체육관역 개통 기념
"워터파크 반값"
삼산체육관역 이용 인증샷 제시시
워터파크 50% 할인
특별우대(10/1~31)
+1
할로윈 맞이 "어린이 공짜!"
성인 2인 결제시
13세 이하 어린이 1명 무료
중 고생 및 10월 생일자
"50% 우대!"
학생증 및 확인 가능 서류 제시시
워터파크/스키 50% 할인
서울도심에서 30분! 놀랄도록 가까운 곳에 웅진플레이도시!
1577-5773
woongjin Play C

돈 안받고 일하는 713만명

무보수 60대·대졸자 늘어 경기침체 우울한 자화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가 늘었다. 특히 60대와 대졸 이상에서 많이 늘었다.

이들은 자영업자이거나 그 가족들이다. 노인들과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안 하고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경기침체 속 영세자영업의 가파른 증가가 만들어낸 우울한 현상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임금 근로자는 71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만명(2.0%) 증가했다. 이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32만2000명으로 1만7000명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비임금 근로자 중 남자는 12만4000명 증가한 436만3000명(61.2%)이고, 여자는 1만6000명 늘어난 276만2000명(38.8%)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11만7000명(29.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늘어난 폭만 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10만9000명이 증가해 가장 컸다.

비임금 근로자 중 500만원 미만을 투자해 창업을 한 자영업자는 30.2%로 가장 많았다. 영세한 창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고용통계과 박영애 사무관은 "비임금 근로자가 속해 있는 사업체 중 63.8%가 개인사업체였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출사의 계절 '최종병기' 찾았다

캐논 미러리스 EOS M 롯데홈쇼핑 28일 판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28일 오후 8시20분부터 롯데 홈쇼핑에서 캐논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 'EOS M'을 판매한다.

홈쇼핑에서 선보일 EOS M 패키지는 두 가지다. 첫 번째 패키지는 EOS M 블랙 모델과 팬케익 렌즈 'EF-M 22mm f/2 STM'이 함께 제공된다. 두 번째 패키지는 EOS M 블랙·화이트 모델과 'EF-M 18-55mm f/3.5-5.6 IS STM'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각각 94만9000·99만8000원이다.

여기에 60여 종의 캐논 EF 렌즈들을 사용하게 하는 'EF-EOS M 마운트'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3만원이다. 캐논은 론칭 방송을 통해 EOS M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EOS M 토트백과 EOS M 다이어리, 16기가 메모리 카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신제품 EOS M은 'EOS 시리즈'의 장점과 콤팩트 카메라의 휴대성을 모두 갖춘 캐논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다. EOS M은 EOS 650D에 탑재된 약 1800만 화소 APS-C 타입의 대형 이미지 센서가 탑재돼 있어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에도 DSLR급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박상훈기자

병원비 걱정 큰 '노년 필수품'

차티스 '명품부모님' 보험 75세까지 가입하면 혜택

차티스손해보험이 노년을 위한 '명품부모님 보험'을 출시했다.

명품부모님 보험은 잦은 노년의 사고로 병원비나 큰 질병을 모두 보장해 노후 걱정을 대비할 수 있다. 골절, 화상은 물론 중병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외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며 노년질환인 백내장, 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도 책임진다. 이 상품은 50~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병원비 걱정이 큰 노년에게 희소식이 될 차티스명품부모님보험은 1577-8601로 전화하면 더욱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 온라인 홈페이지(www.chartis.co.kr)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상훈기자

ECO Job GREEN Career

2012 녹색환경산업 취업박람회

10.30(화)~31(수) COEX Hall B1

[아주 특별한 릴레이 명사특강]

1	열정	개그맨 이승환 (벌집 삼겹살CEO)	30일 11:00
2	재테크	강창희부회장 (미래에셋부회장)	30일 13:30
3	마인드	김현우대표 (라딩인베스트먼트)	31일 11:00
4	희망	서진규박사 (희망연구소 소장)	31일 13:30

환경산업분야 우수기업 80개 현장면접 진행

그린멘토와 함께하는 취업 코칭

다양한 취업관련 부대행사 진행

http://jobfair.ecojob.re.k

사전매칭, 참가기업 면접신청

주최

주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동반 10월 30일(11월 2일(

'다양한 녹색제품과 함께하는 체험행사가 진행됩니

fila.com

나는 [박태환]의 골드다운입니다

"국내 유일, 2개의 마크를 동시에 획득한 프리미엄 다운"

눈 건강 캠페인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렌즈 오래끼면 각막손상? 첨단소재 일일렌즈 '안전'

산소전달량 98% 이르는 실리콘하이드로젤 소재 습윤 인자 함유해 촉촉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렌즈 장기 착용에 대해 근심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내원한 A씨는 올해로 렌즈를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이면 안구가 건조하고 피로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렌즈를 오래 착용한 사람들로부터 렌즈를 오래 끼면 정말 각막이 얇아지고 시력이 나빠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물론 렌즈 장기 착용자들이 눈 건강을 염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눈물 부족으로 인한 안구건조나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렌즈 표면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렌즈 또한 수술법이나 신약처럼 첨단의 기술이 접목돼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리콘과 하이드로겔 소재가 결합된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신소재가 각광받고 있는데 각막에 전달되는 산소가 98%에 이른다. 또 렌즈 재질 내에 친수성 습윤인자가 함유돼 착용감도 촉촉하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에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처방률은 절반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서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짧은 착용주기도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매일 새 렌즈로 교체하는 일일착용 렌즈는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 없는 렌즈에 대한 속설 때문에 익숙한 시력교정수단을 기피하는 것보다는 내 눈을 위해 더 나은 품질의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혜진 교수(서울백병원 안과과장)

촉촉한 '망고씨드' 돌풍

더페이스샵, 출시 2개월 만에 30만개 돌파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지난 9월 출시한 롤렉스팅 보습라인 '망고씨드'가 출시 2개월 만에 3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100% 천연 식물성 망고씨드 버터를 함유한 '망고씨드' 라인의 대표 히트상품은 주력 제품인 '망고씨드 실크보습 페이셜 버터'에 있다.

보디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버터 제형을 끈적거림 없이 산뜻하게 스며드는 얼굴 전용 버터로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온라인 뷰티 카페 및 파워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의 뛰어난 보습감과 지속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을 이끌었다.

한류스타 서현이 출연한 TV 광고와 매장 내 홍보 인쇄물이 화제를 모으며 일본인,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희망고 캠페인'과 연계, 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제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망고씨드' 7종은 사막이나 열대지역 등 척박한 환경에서도 100년이 넘게 사는 강한 생명력의 망고열매 씨앗(망고씨드) 성분을 핵심원료로 함유했다.

망고씨드에서 추출한 망고씨드 버터는 망고나무의 탁월한 영양성분을 응축된 형태로 함유해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동시에 공급하며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망고씨드 실크보습 페이셜 버터'는 피부에 강력한 윤기 보습 코팅막을 형성하고, 파라벤·유기색소 등 7가지 유해물질을 뺀 7무(無) 처방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망고씨드 각질 클리어 스무더, 실크 보습 토너, 실크 보습 에멀전, 실크 보습 아이크림, 착한 윤기 에센스, 윤기 담요 크림 등이 있다. 가격은 1만5900~2만2900원.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망고씨드 라인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 지역의 망고나무 심기 사업에 기부해 최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착한 소비 트렌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왼쪽부터 중국 월드와이드 대표 차이 해이, 아태지역 결승 진출자 서무량 씨, 코니 챙, 챵 리린, 레이 황, 청두 판다 베이스 매니저

특명! 판다를 엄호하라

판다 홍보대사 선발 '2012 청두 팸배서더' 28일 최종 16인 마지막 대결

자이언트 판다를 지키기 위한 16명의 숨 막히는 도전이 시작됐다.

청두 판다 베이스는 '2012 청두 팸배서더'의 결승 진출자 총 16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총 25만5241명의 지원자 가운데 각 지역별 준결승을 통해 선발된 이들은 28일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1년간 '청두 팸배서더'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최종 우승자 3명은 11월에 발표한다.

한국인 백선우양이 진출해 화제를 모았던 아태지역 준결승에서는 싱가포르의 청 리 린, 서무얼 웡, 홍콩의 코니 챙, 대만의 레이 황이 뽑혔다. 아태지역 결승 진출자 4명은 지난 13~15일까지 도전 과제를 수행하며 판다 보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평가받았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싱가포르 외에 중국, 미국, 영국 등 3개 지역에서도 3월간의 준결승전을 통해 총 12명의 결승 진출자를 선발했다.

총 16명의 결승 진출자들은 자이언트 판다의 고향인 중국 청두로 옮겨 세계 최대 규모의 포획 판다 수를 보유하고 있는 청두 판다 베이스를 방문한다.

또 3주 동안 실제 판다와 함께 생활하며 판다 재활 및 보존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 뒤, 판다 서식지로 이동해 판다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여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결승 진출자 중 3명의 우승자는 '청두 팸배서더'라는 공식 명칭과 함께 미화 2만 달러의 상금, 2013년 글로벌 판다 보존 투어 체험 특전 등이 주어진다.

중국 청두를 대표하는 동물인 '자이언트 판다'는 쓰촨 지방의 고립된 산악에서 주로 생활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 종 가운데 하나다.

야생 판다 개체군은 서식지와 생존 요건, 판다의 생존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선천적인 특징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두 판다 베이스는 "멸종 위기에 놓인 판다를 돕기 위해 와일드에이드, 아오 재단과 함께 '청두 팸배서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판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다 서식지를 개선함으로써 판다를 야생에 성공적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원기자

크루즈 띄운 이랜드 '락의 바다'로

〈樂〉

새 성장엔진 '여행·엔터' 첫사업 한강유람선 운항

이랜드그룹이 '락(樂)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랜드는 한강 유람선을 운영하는 한강랜드의 이름을 '이랜드 크루즈'로 바꾸고 여행·엔터테인먼트 등에 뛰어든다고 25일 밝혔다.

락사업은 기존의 패션·유통·외식·레저·건설에 이은 여섯 번째 영역으로, 그룹의 새 성장동력군이기도 하다.

이랜드 크루즈는 여의도와 서울 송파구 잠실, 광진구 뚝섬 등 7개 선착장과 2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7척의 유람선을 순차적으로 새 단장할 예정이다.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은 하루 전인 24일 [illegible] "유람선 리뉴얼로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한국에 종합 테마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랜드는 이를 통해 외식·쇼핑뿐 아니라 유람선, 박물관 등 즐길거리를 제공해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는 취지다.

첫 번째 타깃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이를 위해 올 초에 중국 현지에 여행사업부를 세웠다. 또한 중국 각지의 이랜드 매장을 통해 한국 연예인과 문화 상품을 알려 'K-컬처 딜리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경 부회장의 며느리인 탤런트 최정윤을 비롯해 변정수, 박진희, 이천희 등 연예인 3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피부가 마시는 플로럴 워터 '알타야 오가닉스 백장미 · 라벤더 워터'

건조한 가을 피부에 적신호가 켜졌다. 찬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각질과 갈라지는 주름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분. 메말라가는 피부에는 토너, 미스트, 수분팩 등을 이용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토너, 미스트, 수분팩의 기능을 한번에 하는 워터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알타야 오가닉스의 '백장미 워터'와 '라벤더 워터'가 그 주인공.

알타야 오가닉스의 백장미·라벤더 워터는 희석된 제품이 아닌 오로지 100% 백장미·라벤더 증류수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순수하게 스팀 증류하여 얻어진 백장미·라벤더 워터는 에센셜 오일과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다.

파라벤 및 기타 화학성분, 인공향 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 건성 피부 등 모든 피부에 적합하다.

알타야 오가닉스는 USDA 인증 받은 제품만을 판매하는 천연 오가닉 브랜드다. 불가리아 로즈밸리에서 직접 유기농으로 경작한 백장미와 라벤더를 사용하고 있다.

토너, 미스트, 마스크팩으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수시로 얼굴에 뿌리거나 화장솜에 묻혀 토너로, 거즈에 뿌려 마스크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백장미 성분은 피부를 밝고 맑게 케어 하는데 도움을 주며, 라벤더 성분은 피부진정과 영양공급에 효과적이다.

티켓몬스터에서는 26일까지 34% 할인된 가격에 알타야 오가닉스 백장미·라벤더 워터를 선보인다. 건조한 가을, 메말라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라면 피부가 마시는 플로럴 워터 '알타야 오가닉스 백장미·라벤더 워터'를 만나보자.

메말라가는 피부, 에센스 ·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구달 천연 페이셜 맞춤 오일

차가운 바람에 피부가 메말라가고 있다. 열심히 크림을 발라도 각질이 생기고 건조함이 가시지 않는다.

건조함은 피부 겉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보습관리를 위해서는 피부 속 깊숙한 곳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페이셜 오일이다.

구달 천연 페이셜 오일은 아마존 야생식물의 천연 성분을 농축한 제품으로 '초고보습 힐링오일'로도 유명하다.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았으며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공을 막지 않고, 흡수력이 뛰어나 미끈거리는 느낌이 적다.

피부 고민에 따라 3가지 제품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지치고 탄력을 잃은 피부는 '피토레인 잉카 오메가 파워 오일'. 이 제품 아마존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잉카 피넛은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재생능력이 탁월하다.

'피토레인 패션 후르츠 액티브 오일'은 각질이 허옇게 들뜨는 피부에 적합하다. 아마존 열매 패션후르츠에는 항산화물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유수분 밸런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질정돈 효과가 좋다.

수분이 부족한 지성피부라면 '피토레인 아마조니아 다나시 오일'을 선택하자. 피부 세포는 보호하는 브라질넛씨드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준다. 사용감이 가볍기 때문에 지복합성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티켓몬스터에서는 구달 천연 페이셜 오일 3종을 최대 79%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메마른 가을철, 들뜨고 지친 피부에 맞춤 오일 한방울로 수분과 건강함을 채워보자.

산소 품은 렌즈… 날마다 숨쉬는 눈

눈 건강 캠페인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장기착용 부작용' 근거없는 속설 첨단 '실리콘 하이드로젤' 소재의 위생적 원데이렌즈 눈건강 도움

여러 가지로 편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지만, 눈 건강에 대한 속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 같은 고민은 렌즈 착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커진다.

장시간 컴퓨터를 마주하는 눈에 인공누액을 넣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다. 하루 일과를 마칠 무렵이면 눈이 부쩍 더 피곤한 것도 같다. 이러다가 정말 시력이 나빠지는 건 아닌가, 각막이 얇아지는 건 아닌가. 세간의 속설에 귀가 쫑긋해진다.

실제로 이런 편견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근 콘택트렌즈 브랜드 아큐브®가 국내 소비자 5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콘택트렌즈는 10년 이상 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믿는 것. 그러나 렌즈 착용과 시력 저하, 각막 두께 변화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속설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콘택트렌즈의 멈추지 않는 진화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렌즈를 구입할 때 렌즈의 소재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법. 그러나 시중에는 산소 전달량이 98%에 달해 맨눈에 가까운 편안함을 제공하는 신소재 제품이 출시돼 있다. 원데이아큐브 트루아이®는 실리콘 함량의 밸런스를 맞춰 소프트렌즈의 부드러움과 하이드로젤 소재의 풍부한 습윤성을 동시에 충족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렌즈 스트레스와 부작용은 상당 부분 렌즈의 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까닭에 교체주기가 짧을수록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원데이아큐브 트루아이®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뛰어난 재질에 원데이라는 착용기간과 만난 제품으로 렌즈 관리에 서툰 사용자들도 위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렌즈 착용이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속단하기에 앞서 현재 사용하는 렌즈가 내 눈을 위해 충분히 좋은 제품인지부터 확인해보자. 만약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눈에 미안해하지만 말고, 아큐브®의 무료시험착용 서비스를 통해 원데이아큐브 트루아이®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 건강에 대한 정보는 아큐브® 포 유 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www.acuvue.co.kr /김민지기자

98% 산소전달량

1-DAY ACUVUE TruEye

겨울엔 엔듀 '밀리터리 점퍼'

캐주얼 브랜드 엔듀가 울피하프 스타일의 모닌 밀리터리 점퍼'를 새롭게 선보였다.

롱 스타일(A-51)은 세련된 컬러에 키모클라주 패턴을 추가해 트렌디하고, 위프 스타일(A-N3B)은 외관 장식을 달아 멋스럽다. 가격은 17만9000원.

프리비아 '겨울 휴가 조기예약' 할인 이벤트

현대카드 프리비아가 겨울 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조기예약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겨울 성수기인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다음 달 30일까지 미리 예약 결제하면 최고 7~12% 할인 혜택을 준다.

자유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은 카드별 최고 12% 할인받을 수 있다. 도쿄는 18만원대부터, 파리는 77만원대부터 이용할 수 있다.

프리비아 항공권 이용 고객이 해외 호텔까지 함께 예약하는 경우, 최고 7% 할인에 제휴사별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문의 travel.hyundaicard.com 1588-0360

한경희뷰티 '립 글래머' 오늘 CJ오쇼핑서 론칭

한경희뷰티의 스마트 뷰티브랜드 오앤(O&)이 립 안티에이징 솔루션 '립 글래머'를 오늘(26일) 오전 11시30분 CJ오쇼핑에서 론칭한다.

바르는 즉시 글로시한 볼륨감을 연출해주는 립업 전문 라인으로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 천연식물성 유래성분을 함유해 자극 없이 입술을 관리해준다.

입술을 도톰하게 부풀려주는 립업 볼류머,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해주는 립업 스크럽, 립업 플럼퍼 2종, 립업 부스터, 립업 마스크 등 6종으로 구성됐다. 문의 www.HAANbeauty.com

'주름·기미·잡티·모공' 바르고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기미, 잡티, 주름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MS-Ⅱ+ 골드'

(메조 솔루션 플러스 골드)

"피부과학의 결실 MS-Ⅱ+ 골드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식약청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한 'MS-Ⅱ+ 골드 솔루션

'메조테라피 전용 솔루션 'MS-Ⅱ+ 골드'는 벤처기업 및 국제공인 인증(ISO9001 2000)을 획득한 (주)크라운진이 피부유전자 검사를 통한 노하우로 개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이 솔루션은 주름개선, 보습효과, 피부탄력 및 피부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주며 멜라닌 색소 생성의 예방과 이미 생성된 기미, 잡티까지 관리해 칙칙하고 얼룩진 피부톤을 밝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품은 출시와 함께 탄력을 잃은 피부, 칙칙하고 얼룩진 피부, 기미, 잡티, 모공, 주름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눈가 얼굴 목 주름개선, 기미 주근깨 잡티 등 미백기능으로 10년 전 피부보다 더 깨끗하게! 더 젊게!

▶기미, 잡티, 모공, 주름 잡는 고기능성 소재 함유

'MS-Ⅱ+ 골드'의 주요 성분은 고기능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와 인삼 캘러스 배양근 추출물, 포도 캘러스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다. 고기능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기능 강화를 통해 주름 없이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인삼 캘러스 배양근 추출물과 포도 캘러스 추출물'은 식물에서 추출한 기능성분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탱탱하게 피부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고기능성 메조테라피 전용 솔루션 'MS-Ⅱ+ 골드'는 이들 주요 성분 외에도 여러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어 어둡고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은 물론 기미, 잡티, 주근깨 등으로 얼룩진 피부를 투명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처진 피부에 탄력과 어두운 피부에 깨끗함을 선물한다.

▶1주일에 한 번, 문지르고 발라주면 깨끗해지는 피부

'MS-Ⅱ+ 골드' 솔루션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피부관리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1주일에 1회 정도 6~10주에 걸쳐 메조롤러로 얼굴을 문지른 후 'MS-Ⅱ+ 골드'를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에 몰라보게 환하고 깨끗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늘어진 피부, 넓은 모공, 늘어나는 잔주름, 기미, 잡티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MS-Ⅱ+ 골드 솔루션'을 이용해보기 바란다. 이 솔루션이야말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피부의 화사함을 선사해줌은 물론, 스트레스와 바쁜 업무에 지친 마음까지도 화사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유전자검사 첨단 노하우로, 고기능성 MS-Ⅱ+ 골드를 완성하다!

피부전용 앰플 고기능성 솔루션 'MS-Ⅱ+ 골드'를 개발한 (주)크라운진은 생명공학 시대를 선도할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연구소장과 연구원들을 영입,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공인 인증 ISO9001:2000을 획득하였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탄력에 도움을 주고 주름개선, 피부보습, 피부재생 및 진정은 물론, 기미와 잡티까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MS-Ⅱ+ 골드'의 개발은 모두 다 이러한 (주)크라운진의 선진 생명공학 기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MS-Ⅱ 출시 5주년 기념 무료증정 이벤트!

지금 MS-Ⅱ+ 골드를 구매하시는 분께 식약청기능성인증 MS-Ⅱ+ 세럼과 솔루션 1병을 선착순 무료 증정합니다

문의 02)3672-0014

노인심리상담사 취득인기!

12월 23일 시험 확정!

노인심리상담 급격히 늘어 … 각종 노인시설 등에 심리상담원 증대!

■노인심리상담사란

노인심리상담사는 노인들이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당면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심사를 전문 상담가와 기법을 이용해 관심 있게 다루어 줌으로써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노인 및 그 가족과 대면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 또는 예방하는 전문인으로서 이강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를 노인심리상담사라 한다.

학력, 연령, 경력, 성별에 상관없이 응시가능

4과목 객관식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취업지원 및 개업안내, 프리랜서 활동가능

■ 응시자격 및 전망

노인심리상담사의 응시자격은 학력, 성적,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시험과목은 노인심리상담이론을 포함하여 4과목으로 평균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이다. 합격후의 진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특히 여러 노인시설이나 일반 병·의원에 심리상담 전문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수요가 예측된다. 이 밖에도 개인 사무실을 직접 개업하거나 필요로 하는 여러 업체나 기관들을 상대로 프리랜서 활동 역시 가능하다. 주요업무는 노인여가문제, 노인가족갈등, 노인부부갈등, 우울, 불면, 대인관계 등의 노인심리문제, 성문제, 자살예방, 학대예방, 흥체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담업무를 할 수 있다. 본 자격에 대한 더 많은 시험정보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모두교육원

문의처 02)742-1504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구혜선 '디자인대상' 장관 표창

구혜선이 제14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서 표창을 받았다.

25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는 연기자이자 창작자로서 활동해온 이력을 인정받아 '디자인공로부문-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는 5명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9년 첫 개인전 '탱고' 이후 올해 두 번째 개인전 '잔상'을 개최하는 등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엄태웅 '이순신 외전' 출연 물망

엄태웅이 내년 6월 SBS에서 방송될 드라마 '이순신외전'(가제)의 주인공 물망에 올랐다.

제작사 스토리비 관계자는 "주인공 이순신 역으로 엄태웅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적자' 의 조남국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임진왜란 후 조선을 침범하려는 왜나라의 음모를 이순신이 막아낸다는 내용의 퓨전 사극이다.

배우 하정우 영화감독 데뷔

하정우가 직접 쓴 시나리오로 영화 연출에 도전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5일 "감독 데뷔작은 '인간과 태풍'(가제)으로, 이른 시일 내 캐스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영화는 추락 위기에 처한 비행기에서 한류 스타 마준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동을 그리는 코미디다. 제작은 소속사의 자회사인 판타지오 픽쳐스가 맡는다.

장윤주 '옥탑방 라디오' DJ

모델 장윤주가 KBS 쿨FM '장윤주의 옥탑방 라디오'의 DJ를 맡는다.

최강희가 진행하던 '최강희의 야간비행' 후속 프로그램으로 청취자와 DJ 사이를 최대한 밀착시켜 친밀감을 높인다. 그는 "청취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일상의 따뜻한 얘기와 좋은 음악들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 달 5일 첫 방송. /김민정기자 kimm@

소속사 새 둥지 틀고 연기인생 2막 여는

장·미·인·애

장미인애(28)는 배우 생활 10년차가 된 올해가 뜻깊다고 했다. 탈 많고 치열한 연예계에서 울고 웃으며 보내 온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열 기회를 얻었다. 한 달 전 소속사에 둥지를 틀고 새 작품으로 돌아오는 그는 "이젠 다가올 10년을 바라봐야 할 때"라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순탄하지 않은 복귀과정

올해 초 방영됐던 KBS2 아침극 '복희 누나'에 출연하기 전까지 몇 년간 활동이 뜸했다. 2008년 불거진 한 운동선수와의 열애설과 드라마 '크라임 시즌2'의 종영 이후 소속사 없이 지내며 공백기를 보냈다. 그런 그가 JYJ와 송지효 등이 몸담고 있는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으며 활동에 날개를 달았다.

"연기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고, 나를 찾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혼자 일하면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공백기가 길어지게 됐죠. 그 시간이 나쁘진 않았어요. 친구들과 편하게 술을 마셔도 보고 어릴 때부터 연예인으로 살아오면서 못 해본 것들을 실컷 해봤죠. 하고 싶은 것도 해봤고, 소속사도 생겨 보호받을 울타리가 생겼으니 이젠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귀 과정이 쉽진 않았다. '복희 누나'를 촬영하다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주인공이라 아픈 몸을 이끌고 촬영을 끝냈다. "서러웠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모질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힘들었던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 뿌듯하다"고 털어놨다.

**"'복희 누나' 촬영중 뇌진탕…그래도 강행
긴 공백기 나쁘진 않아…이젠 연기 전념"**

#그녀, 변신의 끝은 어디?

2003년 MBC 청춘시트콤 '논스톱4'로 데뷔한 후, 소울메이트', '행복한 여자' 등을 통해 섹시하고 도회적인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복희 누나'를 통해 강인하면서도 지고지순한 이미지로 변신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방영할 MBC 새 수목극 '보고 싶다'에선 강력계 형사 한정우(박유천)를 짝사랑하는 헵든 작가 김은주 역을 맡아 또 한 번 변신한다.

"아픔을 지녔지만 참 밝고 발랄한 캐릭터예요. 오랜만에 미니시리즈를 하는데다 지금껏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주로 실제보다 나이가 많은 배역을 맡았는데, 이번엔 제 나이에 맞는 연기를 펼칠 수 있다는 점도 좋답니다."

같은 소속사 식구지만, 한 박유천과는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다. 박유천보다 한 살 많은 그는 "친구가 박유천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가 재밌다고 하도 칭찬을 해서 만나기 전부터 왠지 친숙한 느낌이었다"면서 "처음 만난 날 잘해보자고 하더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칭찬했다.

전작에선 캐릭터 설정상 예뻐보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엔 운동을 하고 식사를 조절하며 살을 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대는 해도 들뜨진 않았다. "20대와 30대를 향한 지금 달라진 건 없다.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적관림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헤윤드 이미)·디자인/석선영

이색작품 안보면 후회!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전시 '입자들' 등 눈길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개막을 10여 일 남겨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이색 작품을 소개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다이토 미나베 & 모토이 이시바시'가 제작한 '입자들(Particles·사진)'은 미디어아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작품 중 하나로, 8자 형태의 경사 레일층을 따라 100여 개의 공들이 굴러 내려오는 구조물이다.

각각의 공 안에는 와이파이 수신이 가능한 기판 및 수신 장치와 LED 램프가 내장돼 있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빛을 발한다.

어둠 속을 굴러 내려오는 빛의 공들이 자아내는 환상적인 모습을 통해 미지의 공간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전시 관계자는 "'입자들'은 미디어아트가 단지 기술력 과시나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때로는 사적이고 극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20개국 49명의 미디어아트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너에게 주문을 건다(Spell on you)'로, 새로운 방식의 예술적 소통을 통해 인간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적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교수가 전시 총 감독을 맡았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 /정의훈기자 kwon@

싸이 빌보드 5주연속 2위

국제 가수 싸이가 5주째 빌보드 2위에 머물렀다.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는 24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싸이의 맞수인 미국 팝 밴드 마룬파이브는 '원 모어 나이트'로 이번 주에도 정상을 지켰다. 6주 연속 1위다.

두 곡의 격차는 지난주와 비슷한 2000포인트 수준이다. 싸이는 19일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빌보드 정상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싸이는 ABC·MTV 등 미국 인기 채널의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빌보드 정상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김희선 '신의' 끝내고 휴식차 미국행

톱스타 김희선이 SBS 월화극 '신의'를 끝내고 가족과 미국으로 떠난다.

소속사 관계자는 25일 "김희선씨가 다음 달 남편인 박주영씨, 딸 연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한동안 머물 계획"이라며 "개인 사정상 가는 것으로, 가족과 휴식을 취하며 지난 몇 개월간 촬영으로 쌓인 피로를 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30일 종영을 앞두고 바쁜 촬영 탓에 결혼 7주년(10월 19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김희선은 뒤늦게나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됐다. /박잔우기자 lobe427@

B1A4 오리콘 차트 아쉬운 2위

그룹 B1A4가 일본에서 발표한 첫 정규 앨범 '1'로 오리콘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24일 발매된 이 앨범은 하루 동안 1만372장이 팔려 '일본의 아이유'라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이예이리 레오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1위와 차이는 불과 543장으로 주간차트 정상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 앨범은 일본 음반 판매 체인인 타워레코드와 신세이도 온라인에서 일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열띤 이 돌풍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한국의 신인 그룹이 첫 앨범으로 나카지마 미유키 간자니8 등 일본의 인기 가수를 제친 것은 놀라운 성적"이라며 "일본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둬 멤버들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B1A4는 다음달 국내 컴백을 목표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으며 12월 8~9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엄친아' 택연 토익 만점 화제

2PM의 택연이 만점 토익 성적표를 공개했다.

그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번에 토익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10점 만점에 10점'이 아니라 '990점 만점에 990점~#'"이라면서 직접 찍은 성적표를 공개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택연은 체스 재즈 육상 축구 등 다양한 클럽활동을 해 왔으며 스페인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국어를 구사한다. /김지윤기자 kwon@

김장훈 "가끔 속좁은 남자"

10집 발매 내년 해외활동 전념
"싸이 잘 되길… 국위선양 바란다"

가수 김장훈이 최근 불거진 싸이와의 불화설 자살 소동과 관련한 속내를 밝혔다.

25일 여의도 CGV에서 열린 10집 발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제 사람들이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고 가끔 속도 좁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래도 노래를 하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홀가분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희망의 상징으로 느끼지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며 "술을 많이 먹었고 공황장애 약도 복용하나 기억이 잘 안 나고 내가 미쳐가고 망가지고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 유독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화제한 싸이에 대해서는 "싸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과거는 얘기 안 할 것이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다. 반응이 오래가도록 전략을 잘 짜서 국위선양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김장훈은 "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실망을 느꼈다"며 내년 봄 한국을 떠나 3년간 해외에 머무르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미국 8개 도시에서 50만 관객 동원을 목표로 투어 '2달러의 기적'을 개최한다. 입장료는 2달러만 받으며 티켓 수익금과 자비 10만 달러를 보태 총 30만 달러를 공연한 주의 여성인권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출국 전에는 12월 22~25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김장훈 원맨쇼'다드리고 이듬 공연으로 국내 팬들과 만난다.

한편 다음 달 19일 출시될 10집은 '나와 같다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등 과거 히트곡과 같은 분위기의 발라드로 채워진다. 25일 타이틀곡 '없다'를 온라인에 선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출연한 '없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Mnet

10월 4주

M COUNT DOWN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순위	가수	곡	변동
1위	K.will	이러지마 제발	▲4
2	Miss A	남자없이 잘 살아	NEW
3	가인	피어나	▼
4	에일리	보여줄게	NEW
5위	오렌지캬라멜	립스틱	▼
6위	동방신기	CATCH ME	▼
7위	시크릿	포이즌	▼
8위	Block B	닐리리맘보	NEW
9위	10cm	Fine Thank You And You?	▼
10위	FT아일랜드	좋겠어	▼

<설경구 정우성 한효주>

영화 '감시'로 뭉친 설·정·한

이달말부터 촬영 돌입

설경구·정우성·한효주가 액션영화 '감시'로 뭉친다.

조의석·김병서 감독이 공동 연출할 이 영화는 감시 전문 경찰들과 범죄 조직의 팽팽한 대결을 다룬다. 앞서 '공공의 적' 시리즈로 등 동적인 경찰 캐릭터의 정점을 찍었던 설경구는 능청스러우면서도 냉철한 성격의 팀반장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최근 '광해, 왕이 된 남자'로 1000만 배우 대열에 합류한 한효주는 뛰어난 관찰력과 집중력으로 사건 해결에 앞장서는 새내기 경찰 하윤주 역을 연기한다.

정우성은 범죄 조직의 리더 제임스로 가세해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또 2PM 준호는 감시반의 에이스 다람쥐 역으로 스크린 데뷔 신고식을 치르며,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깐깐한 올케로 얼굴을 알린 진경은 감시반에서 황반장과 티격태격하는 이실장 역으로 힘을 보탠다.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이달 말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조성준기자 when@

정우성 한효주

연예계 '마약 광풍' 이어 칼부림… 스타들 줄부상도 잇따라

판치는 '10월 괴담'

10월의 끝자락을 보내는 연예가에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스타들이 촬영 중 줄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마약·살인 등 대형 사건 사고가 이달 들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해마다 11월에 악재가 많아 '11월 괴담'이 연예가에 나돌았지만, 올해는 강도 높은 '10월 괴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배우 최수종은 24일 KBS1 대하사극 '대왕의 꿈' 을 촬영하다 낙마해 오른쪽 어깨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주인공 태종무열왕 김춘추 역을 맡은 그는 칼을 들기 벅찰 정도로 어깨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라 액션 연기가 어렵게 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촬영장으로 이동하다 차량이 반파되는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몸 상태는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23일에는 같은 드라마 여주인공 박주미가 교통사고로 종합자신에 입원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유준상은 24일 영화 '전설의 주먹' 촬영 중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최근에는 프로포폴 광풍이 연예계를 잔뜩 위축시키고 있다. 19일 에이미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데 이어 최근 검찰이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17일에는 가수 강성수의 친척가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일어난 칼부림으로 사망해 충격을 안겼다. 강지환은 2008년에 이어 또 한 번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정재영·이성민 '칼날' 대결

정재영과 이성민(사진)이 새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서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정재영은 딸의 살해범을 쫓는 아버지로, 이성민은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베테랑 형사로 각각 출연한다.

임정화 주연의 '베스트셀러'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정호 감독이 일본 추리소설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원작을 스크린에 옮기며, 12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강신일의 '아홉색깔 사랑이야기'

중견배우 강신일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강신일과 여우'를 공연한다.

그는 다음 달 1~11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릴 이 공연에서 그동안 주로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단독 주연 공으로 관객을 맞는다.

배우 강신일의 아홉 색깔 사랑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공연은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며 영화와 연극의 한 대목을 연기하는 등 이색적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과 연극 '칠수와 만수', '슬픈 연극', '오셀로의 신부'의 일부 장면을 음악과 함께 선보인다. 음악감독 한재권, 뉴에이지 국악밴드 19밴드가 함께한다.

주최 측은 "강신일이 관객과 사랑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고민에서 출발해 만들어진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1577-7766

/박진현기자

뮤지컬 팬은 좋겠네!

'레미제라블' 한국어 처음 공연

'오페라의 유령' 7년 만에 무대

'캣츠', '미스 사이공'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레미제라블'과 '오페라의 유령'이 올 연말 나란히 찾아와 뮤지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이번 공연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만큼 팬들로선 하나라도 놓치면 아쉬운 기회라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페라의 유령

 # 레미제라블(다음 달 3일 용인 포은아트홀 개막)

세계 4대 뮤지컬 중 유일하게 한국어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공연이다. 1985년 런던 초연 이후 무려 27년 만에 한국어 첫 라이선스 공연을 펼친다.

2009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전한 48세의 평범한 노처녀 수잔 보일이 불러 유명해진 '아이 드림드 어 드림'을 비롯해 '원 데이 모어', '온 마이 오운' 등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웅장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7개월간 10차에 걸쳐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주인공 장발장 역에 발탁된 정성화의 연기를 눈여겨볼 만하다. 국내 뮤지컬 역사상 유례가 없던 가장 까다롭고 철저한 오디션으로 오리지널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가 최종 선택했다. 문의 1544-1555

 # 오페라의 유령(12월 7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개막)

전 세계에서 1억3000만명이 관람해 최고의 흥행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엔 탄생 25주년을 기념한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7년 만에 열리는 내한 공연이다.

2005년 내한했던 브래드 리틀이 다시 팬텀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 작품을 비롯해 '지킬 앤 하이드', '에비타', '레미제라블' 등 굵직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온 배우로 브로드웨이와 월드투어에서 팬텀을 2200여 회 연기해왔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더 뮤직 오브 더 나이트' 등 영국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만든 명곡과 1톤 무게의 대형 샹들리에,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무대 등 볼거리가 화려하다. 문의 1577-3363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wend8686@naver.com

초등생 시험점수 공개 필요한가?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시험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공개했다면 좋았겠지만 시험을 못 본 아이들까지 다 말했다고 합니다. ○○○ 50점! ○○○ 53점! ○○○ 57점!

선생님이 성적을 불러줄 때 우리 아이는 좋 했답니다. 안 그래도 점수가 낮아서 속상한데 친구들 앞에서 공개되니 창피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2학년인데 시험 못 볼 수 있지 않나요? 꼭 선생님께서 발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왜 애들을 상처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점도 학생들이 각자 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선생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더 챙겨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 아이는 제가 챙겨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제 겨우 아홉 살인데 시교육을 시켜야 하나 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삭막하게 하는 줄 몰랐네요.

애특 (ruby****)

ㄴ동
요즘 부모는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혈북
이게 여기에 올릴 정도로 문제인가요? 초등학교 성적 불러줬다고 학교가 심하다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태평천하
요즘 세상에 점수 공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플지 모르시나 보네요. 학생을 배려하는 선생님이라면 좀 더 생각해볼 문제인 듯.

보브자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열등감이 인간의 근본적 에너지라 하더군요.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레이
선생도 처신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학부모의 이런 마음도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정리=김보슬기자 kwon@metroseoul.co.kr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6 What's your name?
자기 소개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브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81. 필립, P-H-I-L-L-I-P입니다
82. 당신 친구의 이름은 뭐예요?
83.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84. 데이비드와 저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85. 당신은 데이비드의 형(동생)인가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81. Phillip, P H I L L I P
82. What's your friend's name?
83. His name is David Spencer
84. David and I are old friends
85. Are you David's brother?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81~8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s your 친구의 이름?
B His name is Paul Johnson.

정답 friend's nam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John and I are old friends / brothers. How do you know John?

2 Are you John's brother / sister?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01 At Neng Publishing Agency, clients are encouraged to write ______ they wish to express.
(A) however (B) whenever
(C) wherever (D) whatever

02 Low interest rates on loans for houses in the city have produced ______ gains in the housing sector.
(A) overpowered (B) affected
(C) challenging (D) impressive

01. Neng 출판사에서 고객들은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쓰도록 독려 받는다.
해설 빈칸 뒤에는 문맥상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를 뜻하는 복합관계대명사 (D) whatever가 정답입니다. 여기서 whatever는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음을 알아 두세요.
어휘 be encouraged to ~하도록 독려 받다 express 를 표현하다
정답 (D) whatever

02 시내 낮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주택 부문에서 인상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해설 gains(수익)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인상적인'이라는 뜻이 적합하므로 (D) impressive가 정답입니다.
어휘 loan 및 대출 overpower 를 압도하다 affected 영향을 받은 challenging 힘든 impressive 인상적인
정답 (D) impressive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4.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숫자 읽기

할인율을 읽을 때, 퍼센트(%)는 단수형으로 읽습니다.

50%	fifty percent

방 번호, 비행기 번호, 건물 번지수 등은 한 자리씩 읽기도 하고, 두 자리씩 묶어서 읽기도 합니다.

Room 414	room four one four 또는 room four fourteen
Flight No.785	flight number seven eight five 또는 flight number seven eighty-five
860 Jason St	eight six oh[zero] Jason Street 또는 eight sixty Jason Street

전화번호에 있는 '-'는 읽지 않고 한 자리씩 읽습니다.

548-0392	five four eight oh[zero] three nine two
1-800-398-9932	one eight hundred three nine eight nine nine three two

Tip '1-800-...' 형태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광고문에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one eight oh oh zero...가 아니라 one eight hundred...로 읽습니다.

만루포 최형우 '해결사 본능'

샌프란시스코의 파블로 산도발이 1회말 첫 타석에서 솔로홈런을 터뜨리고 있다 /AP 뉴시스

산도발 3연타석 홈런 폭발 샌프란시스코 WS 1차전 V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월드시리즈에서 먼저 웃었다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2012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샌프란시스코가 8-3으로 승리했다. 2010년 5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샌프란시스코는 통산 7번째이자 2년 만에 도전하는 정상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샌프란시스코의 파블로 산도발은 1회 첫 타석 솔로홈런을 시작으로 3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산도발은 4타수 4안타(3홈런) 4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배리 지토는 5.2이닝을 6피안타 1실점으로 막고 첫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승리를 따냈다 /유순호기자

장원삼은 1실점 호투 삼성 KS 2연승 질주

삼성이 최형우의 만루홈런으로 SK를 따돌리고 먼저 2연승을 챙겼다

대구구장에서 25일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는 SK와이번스를 상대로 8-3 낙승을 거뒀다

이날 선발로 나선 장원삼은 1실점 호투로 SK 타선을 막으며 승리를 이끌었고, 최형우의 만루홈런은 SK의 추격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

역대 코리안시리즈에서 1~2차전 연승팀의 우승확률은 93.3%(15차례 가운데 14차례)에 달한다. 삼성이 웃음을 띄는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를 깬 팀이 2007년 SK로 당시 두산에게 연패를 넘겨준 뒤 역전 우승한 바 있다

팽팽하던 승부의 추는 3회말 기울었다

삼성은 조동찬이 우중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다음 타선 진갑용은 보내기 번트 모션을 취하다가 돌연 강공으로 전환, 좌중간을 갈랐다. 김상수의 보내기 번트로 2, 3루를 만든 삼성은 배영섭이 중전 2루타를 터뜨리며 단숨에 2-0 리드를 가져갔다

이후 이승엽과 박석민이 연이어 볼넷을 골라 만루 상황을 만들었고, 타선에 들어선 최형우는 4구째를 침착하게 공략, 우중월 만루홈런이 차를 그렸다

25일 오후 대구시민야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3회말 2사 만루 상황 삼성 최형우가 우중간 만루 홈런을 날리고 동료선수들과 더그아웃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SK는 앞선 1회에 잡은 만루 기회가 장원삼의 호투에 막히면서 승기를 잡지 못했다. 6회초 정근우의 좌월 솔로홈런, 8회초 1사1, 2루에서 폭투와 내야땅볼로 두 점을 얻었으나 이미 벌어진 점수차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삼성은 7회말 김상수의 볼넷에 이어 배영섭의 중월 2루타와 박석민이 2점 적시타를 추가하며 승부의 방점을 찍었다 /채성오기자 elseon@

◆ 한국시리즈 2차전 전적

SK	000	001	020	3
삼성	006	000	20X	8

▲ 승 장원삼 ▲ 패 마리오

이변의 날…레알 마드리드·맨시티 패배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독일 원정에서 도르트문트에 무릎을 꿇었다

마드리드는 25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3차전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가 한 골을 넣기는 했지만 마드리드는 홈 어드밴티지를 적극 활용한 도르트문트의 강한 압박에 밀려 승리를 내줬다. 마드리드는 2승1패로 조 2위에 머물렀다. 도르트문트는 마드리드-아약스-맨체스터시티 등이 몰린 죽음의 조에서 2승1무를 기록하며 선두로 뛰어올랐다. 같은 조의 아약스는 맨시티를 3-1로 꺾었다. B조에서는 샬케04가 아스널에 2-0 완승을 거뒀다 /유순호기자

추신수 "이기는 팀으로 가고 싶다"

시즌 마치고 귀국 … "WBC 출전 확답은 못해"

유일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성공적인 시즌을 끝내고 귀국했다

25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그는 이날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시즌 155경기에 출전한 추신수는 타율 0.283, 16홈런, 67타점, 21도루의 성적을 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뒤지지만 지난해 부진을 완벽히 만회했다

내년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추신수는 "어릴 때부터 이기는 야구를 배왔고, 이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정말 지는 것을 싫어한다"며 "팀을 고를 수 있다면 이기는 팀으로 가고 싶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강한 팀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열리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은 스포츠 선수들이 모두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타도 같은 마음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혜택을 받았기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감독님이 바뀌었다. 어떤 결과를 주실지는 장담을 못하겠다. 팀, 에이전트와 계속 이야기 중이니 조만간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추신수는 27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벌어지는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유순호기자 suno@

HAAN
한경희뷰티
오앤 립 글래머
10월 26일(금)
오전 11시 30분
CJ오쇼핑 론칭
"여자의
얼굴나이는
입술이 결정한다"
닿을수록 어려지는 입술, 오앤 립 글래머
탄력, 윤기, 발색력은 UP 주름, 각질, 색소침착은 DOWN
립 안티에이징 솔루션 오앤 립 글래머 시리즈로 입술은 물론 입가주변까지 완벽 케어하세요.
SMART BEAUTY O&
아름다움에 기술을 더하다
이런 분들께 오앤 립 글래머를 추천합니다!